

아라



언니 나 좀 불안한 기사 봤어

큰손들이 AI에서 빠져나갔대



주아

오 그거 이번 4강 주제야

오후 8:05

아라



진짜? 근데 AI 좋다며. 왜 파는 거야



주아

강의 제목이 '폭락 후의 부의 지도'인데 시작 문장이 좋아

기회는 두 번 온다. 한 번은 파티에서, 한 번은 파티가 끝난 자리에서

아라



오 멋있다



주아

큰돈 번 사람이 두 종류래

하나는 파티 한복판에서 버는 사람. 머스크처럼 호황 때 계속 투자하는 쪽

다른 하나는 파티 끝난 자리에서 버는 사람

아라



두 번째가 진짜 부자야?



주아

강사님은 그렇게 봐. 카네기가 그랬거든

1873년 공황 때 다들 도망칠 때 강철공장 짓고 망한 동업자 지분을 헐값에 쓸어담았어

나중에 판 게 지금 돈으로 14조

아라

헐



주아

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어

스탠리 드러켄밀러

아라

누구야



주아

1992년에 영국 파운드에 걸어서 **하루에 1조 4천억**을 벌었어

아라

하루에???





주아

영란은행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그 사건이야

근데 진짜 무서운 건 성적표야

30년 평균 수익률이 30%인데

30년 동안 손해 본 해가 0번이야

아라

한 번도?



주아

응 한 번도

1천만 원 넣었으면 263억이 되는 크기야. 같은 기간 S&P는 7,400만 원이고

아라

차이가 말이 안 되는데



주아

참고로 버핏이 50년 평균 20%야

아라

버핏보다 높다고?



주아

기간은 짧지만 수익률로는 그래

아라



근데 그 사람이 AI를 팔았다는 거야?

오후 8:21

주아



응 근데 순서가 중요해

이 사람이 AI를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 중 하나야

엔비디아 일찍 사서 3배 벌었어

아라



오 그럼 잘한 거네

주아



그리고 **2024년 3분기에 제일 먼저 다 팔았어**

오후 8:23

아라



제일 먼저 사고 제일 먼저 팔았네

주아



근데 한 종목만이 아니야. 1년에 걸쳐 순서대로 다 정리했어

엔비디아 → 마이크로소프트 → 팔란티어 → 브로드컴 → 메타 → 나머지

메타는 3분기에 사서 4분기에 다 팔았어. 딱 한 분기

오후 8:25

아라



ㅋㅋㅋ 뭐야



주아

그래서 2026년 2월 공시에서 **AI 인프라가 0**이 됐어

아라



0?

언니 그럼 나도 팔아야 되는 거야?



주아

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

그게 이 강의가 절반을 들어서 '아니다'라고 말하는 부분이야

아라



엥 왜?



주아

강사님이 딱 못 박았어

"드러켄밀러가 팔았다고 해서 AI 인프라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필요는 없다"

아라



오



주아

이 사람은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엄청 빨라. 일찍 들어가서 일찍 나오는 스타일이야

마지막까지 다 먹으려고 안 하고, 어느 정도 벌면 나가서 남한테 기회를 남겨

실제로 마이크론에서도 똑같았어

오후 8:33

아라



우리가 아는 그 HBM?



주아

응 미국 HBM 회사. 일찍 사서 3배 벌고 나왔어

근데 그 뒤에 주가가 2배가 더 올랐어

아라



아 아까웠겠다



주아

근데 안 샀어

오후 8:35

아라



왜?



주아

그게 이 사람 원칙이야. **한 번 판 건 다시 안 사**

아라



나 같으면 다시 샀을 것 같은데



주아

ㅋㅋㅋ 나도. 근데 그 얘기가 뒤에 또 나와

아라



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어?

오후 8:39



주아

두 방향이야

첫째는 AI를 **써서** 장사하는 쪽

아마존을 거의 두 배로 늘리고 알파벳도 늘렸어

그리고 Sea Limited라는 데를 **244%** 늘렸어

오후 8:41

아라



거긴 뭐 하는 데야



주아

동남아랑 인도네시아, 브라질에서 AI로 전자상거래 하는 회사야

쿠팡에도 투자하고 있대

아라



아 AI를 만드는 데가 아니라 쓰는 데네



주아

정확해. 그게 핵심이야

둘째는 실물이야. 알루미늄 회사, 항공사, 담배, 그리고 구리

아라



갑자기 구리?



주아

이 말이 좋아. **"구리는 8년간 공급이 늘 수 없다. 거기에 AI 데이터센터 수요까지 온다"**

아라



아 데이터센터에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구나



주아

응. 그래서 이 두 방향이 결국 같은 얘기야

하나는 AI를 쓰는 쪽, 하나는 AI가 쓰는 재료 쪽

아라



그럼 AI가 끝난 건 아니네?

오후 8:49



주아

전혀 아니래. 이 사람 말이 딱 이거야

"AI는 더 이상 엔진이 아니다. 그런데 모든 곳에 있다"

아라



무슨 뜻이야



주아

AI가 특정 동력원이 아니라 세상 전체로 퍼지고 있다는
거야

그러면 주도하는 기업도 계속 바뀌지

실제로 엔비디아는 작년 가을부터 별로 안 올랐고 메모리
반도체가 올랐잖아

아라



아 자리가 옮겨 다니는구나



주아

강사님이 지금을 90년대 IT 성장기랑 비슷하다고 봐

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돈 버는 회사가 계속
바뀌었대

시스코가 잘나가다가 다른 데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
빅테크로 모인 거지

아라



그럼 지금도 그 10년 중이야?



주아

응. 2024년에 시작됐고 **2035년까지가 제일 좋은 기회**래

오후 8:55

아라



왜 10년이야



주아

독점 때문이야. AI에서도 결국 독점이 생길 수밖에 없대
근데 한번 생기면 30년, 길면 90년을 지배해

아라

90년???



주아

IT 봐. 아마존이 유통 먹고 나서 나머지 다 사라졌고 광고는
구글이랑 메타가 먹었잖아

오후 8:57

아라

그럼 그 사람 따라 가면 되겠네

오후 9:01



주아

ㅋㅋ 강사님이 그거 안 된다고 네 가지 이유를 들어

아라

뭔데



주아

첫째, 공시가 **넉 달** 늦어

아라

넉 달?



주아

응. 작년 4분기 거래가 올해 2월에야 공개돼

오후 9:03

아라



아 그럼 우리가 알 땐 이미 끝난 거네

주아



세일 소식을 세일 끝나고 듣는 거지

아라



ㅋㅋㅋㅋ 딱 그거네

주아



둘째, 진짜 속셈은 절대 미리 안 말해

다 사고 주가 오른 다음에, 아니면 다 팔고 한참 뒤에 얘기해

아라



교묘하다

주아



셋째가 제일 중요한데, **거장도 자주 틀려**

아라



어떻게 틀렸는데

주아



엔비디아 판 다음에 **83%가 더 올랐어**

오후 9:07

아라



헐 83%



주아

본인도 너무 일찍 팔았다고 후회했대

넷째는 자기 돈만 굴리는 데라 우리가 맡길 수도 없고,
거래가 너무 잦아서 못 따라가

아라



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



주아

우리한테는 우리 원칙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려고

근데 여기서 진짜 좋은 비교가 나와

오후 9:13

아라



뭔데



주아

아이작 뉴턴

아라



엥 그 사과 뉴턴?



주아

응 만유인력 그 뉴턴. 주식도 했었어

사우스시 컴퍼니라는 데서 돈 벌고 잘 빠져나왔어

오후 9:15

아라



오 잘했네



주아

근데 그 뒤에 주가가 40%가 더 올랐어

아라



아... 다시 샀구나



주아

꼭짓점에서 다시 샀어

 TIME GUEST

 아이작 뉴턴

1720, 사우스시 버블

"나는 별의 운동은 계산할 수 있었지만,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하지 못했다. 나는 한 번 잘 빠져나왔다. 그리고 값이 더 오르는 것을 보고 다시 들어갔다. 그것으로 나는 파산했다."

아라



ππ 결과가



주아

10분의 1 토막. 파산했어

드러켄밀러는 후회한다고 말하면서도 **다시 안 샀어**

아라



그 차이구나



주아

강사님 말이 이거야. 후회하는 거랑 다시 사는 건 다른 행동이라고

그리고 하나 더 있어

드러켄밀러가 엔비디아 살 때 사실 AI를 몰랐대

아라

엥?



주아

주변에서 유망하다니까 검토하고 산 거래

근데 그 사람이 사면 주가가 오르니까 기업들이 먼저 정보를 갖다 줘

아라

아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네

오후 9:22



주아

그리고 강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

드러켄밀러 한 사람만 들으면 위험하대

아라

왜?





주아

그래서 거장 세 명을 더 봐

하워드 막스는 낙관 균형, 워런 버핏은 비관 균형, 레이 달리오는 실물 균형

오후 9:28

아라



다 다른 말 하겠네



주아

표현은 다른데 행동은 같대. 그 얘기가 마지막에 나와

먼저 하워드 막스

2000년에 닷컴 버블을 정확히 맞춘 사람이야

아라



오 대단하네



주아

근데 지금은 **"아직 광기는 아니다"**래

아라



옹 의외인데



주아

닷컴 때 주가가 지금 AI보다 더 비쌌대

오후 9:34

아라



그럼 더 갈 수도 있는 거네



주아

근데 여기 무서운 얘기가 있어

1996년에 그린스펀이 '과열이다' 하고 경고했거든?

아라

응



주아

거품이 그 뒤로 4년을 더 갔어. 정점이 2000년 3월이야

오후 9:36

아라

4년...



주아

그래서 이 사람 문장이 이거야. **"과대평가는 내일 내린다는 뜻이 아니다"**

아라

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



주아

다 들어가지도 말고, 다 빠지지도 마라

이유가 안전 마진이야

아라

그게 뭔데



주아

재작년에 샀으면 5~6배 올랐잖아. 그럼 반토막 나도 2배가 남아

근데 지금 새로 들어가면 그 여유가 없어

오후 9:40

아라

아 이해된다

주아

두 번째는 버핏인데 돈이 완전 반대야

"지금 시장은 교회에 카지노가 붙은 것 같다"

아라

ㅋㅋㅋㅋ 표현 세다

주아

차분하게 투자하던 사람들까지 도박처럼 하고 있다는 뜻이야

60년 투자하면서 이렇게 도박 분위기였던 적이 없대

오후 9:46

아라

그래서 뭘 했는데

주아

말보다 행동이 세

버핏이 쌓아둔 현금

580조원

사상 최고 수준. 한국 1년 예산 720조 원에 육박한다

아라



잠깐 720조가 나라 1년 예산이잖아

주아



응 거기 육박해

14분기 연속으로 팔기만 했어

아라



3년 반을 계속 판 거네

주아



근데 자기 회사 주식은 21개월 만에 다시 샀어

아라



무슨 뜻이야 그게

주아



시장은 비싸고 자기 주식은 싸다는 거지

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. **"내 60년 동안 진짜 좋은 기회는 5번뿐이었다"**

"진짜 살 때는 아무도 전화를 안 받을 때다"

아라



와 그 표현 좋다

주아



강사님은 이걸 '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말한 것'으로 읽어

세 번째가 레이 달리오야

"AI는 거품의 초기 단계다"라고 했어

아라



초기? 그럼 아직 멀었다는 거야?

주아



거품이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지. 그리고 **"자본이 미국에서 빠지고 있다"**고도 했어

작년에 금이 65% 올라서 제일 잘한 자산이었대

오후 9:58

아라



또 금이네

주아



ㅋㅋㅋ 그치. 달리오는 10%, 칼 아이칸은 7.5% 정도 금을 가지래

아라



왜 하필 그 숫자야



주아

땀이야. 위험한 데 많이 넣어놔으면 배를 고정할 게 필요하잖아

아라



아 저번에도 그 얘기 했었지

오후 10:00



주아

응 강사님도 비슷하대. 달러 5에 금 1

아라



근데 거장들이 왜 하필 그때 움직인 거야

오후 10:04



주아

이유가 세 개래

첫째, **돈이 너무 많이 들어**

빅테크 다섯 곳 설비 투자가 2년 만에 2.8배가 됐어. 올해
예상이 7,250억 달러야

오후 10:06

아라



감이 안 오는데



주아

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설비에 쓰는 거야. 역사상 없던
일이래

아라



그게 왜 문제야? 투자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니야?

 주아

옛날 IT는 차고에서도 창업했잖아. 돈이 별로 안 들었어

MS-DOS도 개발자 몇 명이 만든 거고

아라

 근데 지금은? 주아

데이터센터를 지어야 해. 우리나라 제철소나 조선소처럼
돈을 부어야 하는 산업이 된 거야

아라

 아 그럼 빛도 많이 지겠네 주아

그래서 예전처럼 금융 충격에서 자유롭지가 않아

오픈AI 하나만 봐도 2030년까지 300조를 더 조달해야
한대. 지금 매출의 22배야

아라

 헐 주아

둘째는 주가가 비싸다는 거야

CAPE라는 지표가 있어. 10년 평균 이익으로 계산하는 거

아라

 왜 10년이야

 주아

한 해 실적이 좋거나 나쁘다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

1929년에 32.6, 1999년 12월에 44.19, 그리고 2026년 1월에 40.58

아라

 지금이 두 번째로 높은 거네 주아

응. 그리고 매번 이유가 있었어

1929년엔 전기 혁명, 1999년엔 닷컴 혁명, 지금은 AI 혁명

오후 10:18

아라

 매번 이번엔 다르다고 했겠네 주아

정확해. 그리고 1999년 다음에 **78%가 빠졌어**

아라

 78%... 주아

셋째가 제일 구체적인데

오픈AI가 엔비디아한테 인프라를 약속했었거든

작년 9월엔 150조 규모였는데 올해 3월엔 44조로 줄었어

아라

70%나?

주아

응. 근데 오픈AI가 엔비디아 최대 고객이야

오후 10:24

아라

아 최대 고객이 주문을 줄인 거네

주아

그게 매출 정점이 보인다는 신호래

WSJ에서는 엔비디아 내부에서도 오픈AI 사업 모델에 의심이 나왔다고 보도했어. 젠슨 황은 부인했고

아라

음

그럼 나는 뭘 보면 돼

오후 10:28

주아

강사님이 딱 하나를 지목했어

오픈AI가 가을에 상장에 성공해서 돈을 확보하느냐

아라

왜 그게 중요해

 주아

구글은 괜찮대. 광고랑 유튜브로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
근데 오픈AI 같은 데는 AI만 하는데 아직 돈을 못 벌잖아

아라

 거기가 흔들리면 엔비디아도 흔들리겠네 주아

응 정확해. 수요 자체가 흔들리는 거니까

마지막에 두 사람이 더 나와

데이비드 테퍼는 2009년에 리먼 터지고 다들 팔 때
은행주를 **12센트, 19센트**에 샀어

아라

 동전이네 진짜 주아

그해 132% 벌었어

빌 애크먼은 코로나 폭락 한 달 전에 400억 넣어서 한 달
만에 3.8조를 벌었고

오후 10:36

아라

 와 미쳤다 주아

근데 애크먼은 좀 주의해야 해

아라



왜?



주아

2020년에 TV 나와서 울먹이면서 '미국 끝났다'고 했거든?

근데 실제로는 그때 사고 있었다

오후 10:38

아라



헐 뭐야 그게



주아

그래서 말은 믿지 말되 살 때를 아는 능력은 인정한다는 거야

강사님 정리가 좋아. 파는 기술이 더 어렵다. 우리한테 현실적인 건 테퍼처럼 사는 기술이다

아라



오 그건 좀 와닿는다

오후 10:40



주아

참고로 이건 다 2009년, 2020년 얘기야. 그때 그랬다는 기록이지

아라



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야

오후 10:44



주아

기업이 아니라 영역이 답이다

아라

영역?



주아



거장들이 한 곳이 아니라 **세 곳**으로 나뉘네

① AI를 쓰는 쪽 — 응용이랑 플랫폼

② 실물 — 금, 구리, 에너지

③ 현금 — 위기 대응용

아라

아 종목이 아니라 바구니 세 개네



주아



그 표현 좋다 ㅋㅋ 딱 그거야

타이밍 맞추는 건 어차피 어려우니까

아라

그럼 나도 뭘 사야 되는지는 안 알려주는 거네



주아



응. 강사님이 그것도 말했어

버핏이랑 드러켄밀러 둘 다 성공했는데 방식이 완전 달랐대

자기 사정에 맞는 자기 원칙을 세우라는 거야

아라



남 따라 하면 안 되고

주아



응. 그리고 하나 더. 맨날 폭락한다는 사람이나 맨날 오른다는 사람 말은 그냥 무시해도 된대

오후 10:52

아라



ㅋㅋㅋ 시원하다

오늘 좀 정리됐어. 큰손이 팔았다고 나도 팔 일은 아니라는 거

주아



맞아. 그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

다음 강의는 AI가 옛날 IT랑 얼마나 다른지 한대

오후 10:54

아라



오 그것도 궁금하다

주아



올라오면 또 풀어줄게